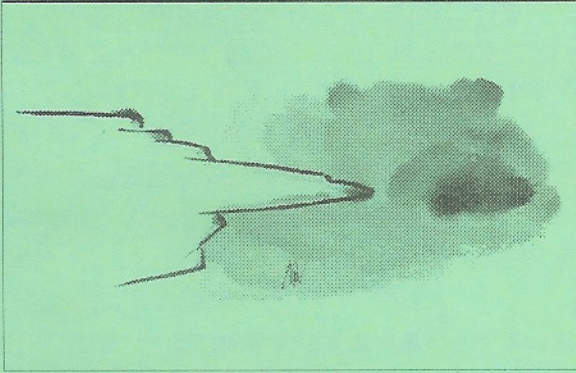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4주일
제29권 10호(나해) 2009 · 2 · 1

[묵상]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마르 1,22)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
참으로 볼 것도 많고 들을 것을 많으며
배울 것도 많고 알아 두어야 할 것도 많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했거늘
이 많은 지식과 정보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모두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것이다.
인간의 두뇌는 무한한 가능성의 산실이다.
이성과 감성이 교차되어 쏟아내는 이 엄청난 것들.
허나 하루만 지나면 이들은 쓰레기가 된다.
혹시나 해서 노트나 폴더에 잡아두지만
그 속에서 그렇게 잠들고 만다.
그러나 오늘 놀라운 가르침이 선포된다.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사랑의 가르침,
영과 육의 세계를 동시에 꿰뚫는 진리의 가르침,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봉사의 가르침,
스승님, 가르쳐 주소서. 종이 배우겠나이다.
주님, 이끌어 주소서. 종이 행하겠나이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오전 오후 오후	2:00 10:00 8:00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오후 오후	9:30 7:00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오후 오후 오후	6:00 5:00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오후 오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9:00 1:00 9:00 1:00 1:00 1:00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 엄은섭 도로테오, 구기순 마리아, 강중익
	(생) 김양자 카타리나, 홍순자 안나 가정 김풍길 바오로와 재희 모니카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 김인영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안춘자, 이규성, 전상근루카, 최복덕 마리아, 이현호 요한, 김용팔 다두, 김봉선 마리아, 이영자 마리아, 변세연 대견안드레아
	(생) 김수환 추기경, 조혜정 헬레나, 박재훈 제임스, 이종민 요셉, 이종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이호미 엘리사벳, 신중신 다니엘과 영애 켈마 가정, 윤대옥 다니엘과 율리아 가정, 신철규 미카엘, 오태환 바오로와 윤희 글로리아 가정, 장정진 베로니카, 민서영 크리스티나, 송영원 크리스티나와 타미 가정, 배기엽 클레멘스, 오진 베드로와 메히틸다 가정, 조옥중 사도요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신명기(Deuteronomy) 18,15-20

화답송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전례성가 65, 사순제3주일 A해와 같음>

○어서와 하느님께 노래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목청 돋우세. 송가를 부르며 주님앞에 나아가세.
노랫가락 드높이 주님을 부르세.◎

○어서와 엮드려서 조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세. 당신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우리는 그 목장의 백성이로세.◎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무디게 말라.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고, 내일을
보고도 시험하려했네.◎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7,32-35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어둠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도다.◎

복 음 마르코(Mark) 1,21-28

영성체송 주님의 얼굴을 주님 종 위에 비추시고, 주님의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불렀으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51	178
봉헌	269	265,234
성체	418	292,308
파견	낮은자의 하느님	226

23. 인간 생명의 존엄성

▶ 생명 경시 현상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농경 사회를 이루고 대가족 제도를 유지해 오면서 가족 간의 긴밀한 유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수태된 생명을 언제나 가장 소중하게 보살폈으며, 출산하여 하나도 잃지 않고 키워 냈을 때 이를 하늘이 내려 주신 큰 복으로 여겼다. 그러나 산업 사회로 발전하고 핵가족화 된 오늘날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미덕이 차츰 사라지고 자기중심적 이기주의가 넘실거리고 있다. 자립과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멀어지고, 순간적 쾌락에 탐닉하는 경향과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는 무분별하게 낙태 시술을 하는 등 생명을 해치는 끔찍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세 2,7) “하느님의 영이 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제게 생명을 주셨답니다.”(요기 33,4)

인간의 생명은 임신[受精]의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태아도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바라지 않은 성(性), 또는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는 이유로 인공 유산을 하는 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다. 또한 가족계획이라는 명목으로 불임 수술을 하거나 인공적인 피임을 하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스런 행위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해치는 풍조는 성을 한낱 쾌락의 대상이나 상품으로 여기게 하고 결국 인간 존엄성을 상실하게 한다.

▶ 그리스도인의 가족계획

부부가 원만한 가정생활이나 건강 문제 또는 부양 능력에 맞추어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므로 교회는 자연적인 가족계획을 인정한다. 또한 부부의 성(性)생활은 자녀의 출산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부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신들의 성적 욕구만을 채우려고 태아, 곧 한 인간 생명체를 마음대로 없애 버리고, 하느님께서 인간 육체에 부여하신 자연 질서까지 거슬러 가며 인공적으로 피임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부는 산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면 자연적인 가족 계획법(자연 주기법, 점액 관찰법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최근 생명 공학의 발달로 이른바 ‘시험관 아기’나 ‘복제 인간’에 대한 갖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만이 아니라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확고한 윤리 의식이 필요한 때다.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학 기술의 발달은 오히려 인간 사회를 불행하게 하고 자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CBCK 제공 - 계속)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예수님

지난해 해외 언론에 로마 교황청이 악마를 내쫓는 사제 수백 명을 구마사(驅魔師)로 양성한다는 계획이 보도됐습니다. 외신은 교황청이 전 세계적으로 악마주의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현상을 경계하며 이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악마의 존재를 미신이나 과거의 유물정도로 생각합니다. “악마의 가장 은밀한 간계는 우리로 하여금 악마의 존재가 없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악마란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나쁜 길에 빠졌거나 빠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것은 인류역사에 죄와 불행의 씨를 뿌리는 두려운 유혹자이며 원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과 악마가 들린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악마를 몰아내는 전통적인 예식은 구마자가 십자가를 높이 들고 강복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때 악마 들린 사람이 고함을 지르거나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교회역사에서 보면 성인성녀들도 악마의 공격과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요한 비안네 신부님은 악마의 시달림을 많이 받은 성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이 악마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사목적으로 잘 돌보아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카파르나움 회당으로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소란을 피웁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놀랄 일입니다. 악마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악마에게 명령하십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마는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악마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악마는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고 타락으로 이끌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기적은 악으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마를 쫓아내는 것이 하느님 나라가 왔다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우리도 악마를 내쫓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세례성사는 우리를 악마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악마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악마를 내쫓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약한 탓이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또한 기도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굳은 믿음(마태 17,20)과 기도(마르 9,29)로써 악마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성가는 성모님을 통해 드리는 묵주기도는 악마를 내쫓는 특효약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몸과 마음이 아프다고 무조건 악마의 영향으로 보는 것은 금물입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리고 악마가 저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내쫓아주세요.”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딕레 데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배제일 미카엘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미영 미카엘라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김정은 젬마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혜경 레나타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P.V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1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2 월

- ◆ 병자 영성체 : 5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 성 시 간 : 5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 토린스 동구역
- ◆ 성모신심 미사 : 7일(토) 오전 8시30분

-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1월31일(토) 오후 6시 유아세례식에서 2명의 아기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박지노 제노 ● 민서영 크리스티나
-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2009년 올해는 본당의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 가입 확대의 해입니다. 아직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참여하여 본당 발전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일 정 : 매월 첫째주일에 계속 시행
● ☎ 종교교육분과 최재은 베드로 위원장 (310)694-4585
- ◆ 새 영세자 첫 고해(2008년 12월 24일 세례받은 신자들)
● 2월5일(목) 오후 8시30분(성시간 후)
● 대자녀들이 고해성사를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 성모신심 미사 후 성서 통독
● 일시 : 2월7일(토) 성모신심 미사 후, 강당
● 성모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발렌타인스데이 장식 풍선아트 강좌
● 일시 : 2월7일(토) 오후 2시, 강당
● 주최 : 자모회, 강사 : 풍선아티스트 김영미 파센시아
● 재료비 : \$20
● 신청 : 김문선 미리암 ☎(213)369-0288. 미리 신청바람.

- ◆ 어르신을 위한 성경공부(요셉회 & 안나회)
● 일시 : 2월8일(주일) 오후 1시30분, 강당
● 준비물 : 새로나는 성경공부, 색연필
- ◆ 양엽회 Vs 대전회 족구시합
● 일시 : 2월8일 오후 1시30분 축구장
● 간단한 음료가 준비되어있습니다.
- ◆ 상장예식서(한글-영어 합본) 발간
가톨릭 연도와 장례예절을 책 한권으로 어려움 없이 치를 수 있는 한-영 상장예식서 'Catholic Funeral Rites(English-Korean)'가 평화신문 미주지사에 의해 발간됐습니다. 이 예식서는 한국어에 서툰 영어권 2세 신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가정에 한권씩 비치하여 신앙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시다.
● 사무실에서 판매중입니다. 권당 \$15
- ◆ 견진성사 신청 접수
● 오는 4월26일(주일) 성인신자들을 대상으로 견진성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견진받기를 원하는 세례신자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종교교육분과위원회에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 ◆ '사도 성 바오로 해'- 바오로 서간 공부 및 필사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바오로 사도가 집필한 서간은 모두 13권입니다. 백삼위 성당 주보는 올 6월 29일까지 계속될 '바오로 해' 기간 중 바오로 서간과 신학사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성경목차를 따르지 않고, 집필된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백삼위 성당 신자들은 매주 소개하는(이번주는 제외) 바오로 서간을 가능한 필사(筆寫)하거나 필독(必讀)할것과 주보를 통해 그 신학사상을 공부할 것을 권고합니다.
● **필사 순서** : 테살로니카 1서, 테살로니카 2서, 코린토 1서, 코린토 2서, 갈라타아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로마서, 에페소서, 콜로새서, 티모테오 1서, 티모테오 2서, 티토서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2월1일(주일) : 소공동체 (김밥 \$4)
● 2월8일(주일) : 토린스 서1반(육개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김일선 문두현 손춘화 이병우 최진수	곽효식 김재영 민찬기 오명섭 이석제 하정화	국세찬 김정엽 박선희 우영주 이석호 한혁수	김관기 김종문 박수익 유영균 이재정 황인중	김병학 김충섭 박종열 이경태 정동호 황지영	김우용 김한진 서성용 이민상 최수복 송마이클
합계 : \$3,175						
미사헌금 : \$3,007						

성전헌금	고천용 김일선 박선희 유영균 이일길 황인중	곽효식 김정엽 박수익 이경태 이재정 황지영	국세찬 김종문 박종열 이민상 정동호	김관기 김충섭 서성용 이병우 최진수	김병학 김한진 손춘화 이석제 하정화	김우용 민찬기 우영주 이석호 한혁수
합계 : \$2,490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주일학교 사순피정 신청

- 주제 : Heaven on Earth
- 날짜 : 3월13일(금)~15일(주일), 금요일 오후4시 성당 출발, 일요일 오후 5시30분 도착예정
- 장소 : 테메칼라 꽃동네 피정센터
- 참가비 : \$40(3월2일 이후 \$50)
- 대상 : 7학년-12학년 (선착순 40명)
- 준비물: Bible, Rosary, Sleeping bag, Pillow, Towels, Toiletries, Extra shoes, Warm jacket, 주일미사 헌금

● 신청기간 : 2월1일(주일)~3월8일(주일)

● 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사무실

● 문의 : 강 아네스 ☎(310)780-0369

◆ 백삼위 한국학교 2학기 등록 중

- 첫째 자녀 \$150, 둘째 \$140, 셋째 \$130, 넷째 자녀는 무료입니다.
- 등록 일시/장소 : 1월25일(주일)부터 한국학교 교사실 이헬레나 교장 ☎(310)347-8765
- 2009년 SAT II 준비반 모집

※ 각종 모임시 2층 각교실의 테이블/의자를 옮겨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원위치로 돌려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한국학교 클래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탁입니다.

남가주 소식

◆ 성모님께 봉헌을 위한 33일 준비특강

- 일시 : 2월12일(목)~14일(토)
- 장소 : 성 바실 지하성당
- 주제 :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지소서
- 감사 : 배 모니카 수녀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수녀원)
- 대상 : 전 신자 * 회비 없음
- 주최 : 파티마 세계 사도직(푸른군대) 서부평의회
- 문의 : 한만수 안드레아 ☎(323)818-1285

◆ 청장년을 위한 프란치스칸 재속회 재속생활 피정

- 일시 : 2월13일(금)~15일(주일)
- 장소 : Serra 피정의 집(말리부)
- 대상 : 20~30대 후반 청장년
- 참가비 : \$170 *주최 : MGMA(청장년재속프란치스칸회)
- 신청 및 문의 : 윤성민 도미니코 ☎(714)457-9571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남명자 데레사 328-0847 2/15(주일) 오후 4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2/14(토) 오후 7시, 성당
	3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782-1025 2/13(금) 오후 8시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김대우 비오 378-8763 2/13(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윤바오로 & 실비아 540-6925 2/21(토) 오후 6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김미성 미리암 343-3273 2/10(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2/20(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박마르시아 325-6982 2/11(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정하상바오로 & 율리아 768-1488 2/6(금) 오후 7시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2/13(금) 오후 7시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종열 토마스아퀴나스 784-0460 2/14(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2/5(목)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김은 안나 541-5429 2/6(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자 544-4807	금영도 베드로 541-4760 2/13(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한애경 율리아나 541-5370 2/13(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2008년도 교무금 및 성전헌금 입출금 보고

교무금 현황				성전헌금 현황				
수입	미사헌금		33%	155,824.51	성전헌금	90%	173,577.00	
	2차헌금	구유 예물/은퇴 수도자 기금 포함	4%	21,305.00	기타 10%	감사헌금	19,744.89	
	교무금		54%	263,805.00		Recycling	670.00	
	기타		1%	6,650.00		MISC.(Refund 기타)	50.00	
		성당 사용료	0.4%	2,000.00			-	
		5% 특별목적 헌금 - 어린이놀이터기금 포함		23,192.00				
	2%	사순 애금 (Together in Mission)		9,062.50	수입총계	100%	194,041.89	
	0.6%	MISC. /Refund 기타 수입		3,105.75	교무금 구좌에서 이체(Transfer)		120,468.61	
100%	수입총계		484,944.76	입금 합계		314,510.50		
지출	인건비	급여		36,578.00	LOAN PAYMENT 미래(1)		139,313.45	
		사제 & 사무장 활동비/수도자주거비		43,524.40		LOAN PAYMENT 미래(2)		155,266.80
		의료보험		13,536.80			소계*	
		차량구입비		7,928.54		* Interest Principal		
		사제 은퇴 기금		3,000.00				164,302.65
		29%	소계			104,567.74	은행수수료	
	사목비	전례비		6,547.87	Loan 서류비(#851466 완납)		91.00	
		주일학교 지원비		4,042.98	특별 목적 기금 사업비:			
		종교 교육비		3,569.42	영상시설 & 음향 설비		32,065.02	
		한국학교 지원비		574.38	성전 청년밴드무대 & 가구, 설		7,329.10	
		산하단체보조비		34,453.25	소계*		39,530.12	
		전교비 / Homeless돕기/ Taxi Svc.		5,553.15	참고: "2008년 7월 교무금구좌에서 \$120,468.61 이체 받아 사제관/부대시설 Loan 완납. 8월부터 Loan Payment는 \$12,938.90 지출 되고 있음." " 특별 목적 기금 \$100,000.00 중에서 2008년도에 사용된 액수는 \$39,394.12 (감사 드립니다.)"			
		사제/수도자 피정 & 회의 참가비		2,804.00				
		행사비		3,235.61				
		17%	소계			60,780.66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사제관 포함)			42,177.78		
	관리수선비			80,171.72				
	세금 (급여세 & 재산세)			6,569.12				
	보험			26,320.90				
	소모품비(일반/사무실)			4,474.58				
	은행 수수료/ Bad Checks			387.50				
	차량유지비			7,346.23				
	장비 대여 (Equip./Rental)			6,517.95				
	비품/장비 구입(EQ. & Furniture)			3,023.23				
	49%		소계		176,989.01			
	잡지출	가톨릭방송국 후원금		3,600.00				
		기부금/기타 참가비 보조,경조사비		8,575.09				
		친교장 인허가 비용(구비서류 보완)		4,000.00				
		소공동체 수고비(어린이놀이터기금)		1,000.00				
		5%	소계		17,175.09			
기타	Cash Transfer: 사제관 Loan 완납 (Loan 원금 & 이자 & 서류비)		120,468.61					
	교무금구좌 경장 순 지출 : 74%		359,512.50					
100%	지출총계	Cash Transfer: Loan 지출포함:	479981.11	지출총계		334,110.37		
2008년 결산	교무금구좌 순 지출 결산: 잔액 26%		125,432.26	2008년 결산	성전구좌 결산	(140,068.48)		
	Cash Transfer: Loan 지출포함: 잔액		4,963.65	Cash Transfer 수입에 포함 결산:		19,599.87		
12 / 31 / 2008 기준 교무금 은행 잔고(Mirae)				161,813.64	12 / 31 / 2008 기준 성전헌금 은행 잔고			
미 지불 체크(Uncleared check)				8,150.24	중앙 은행 (Center Bank)		3,000.00	
참조: 주일학교 기금(Sunday School Fund) 입출금				-	태평양 은행 (Pacific City Bank)		135,806.19	
Petty Cash 보관				200.00				